

環境과 環境設計

梁 銳 在
서울大 環境大學院 教授

관계로 본 環境과 設計

불과 이십여년전 까지만 해도 그다지 보편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던 '環境'이란 말이 근래에 와서는 자주 사용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現象은 環境이라는 용어가 가진 매우 복잡적이고 전문적인 개념을 깊이 인식하여 사용하고 있다기 보다는 辭典의인 의미로서의 環境, 즉 주변상황이라든가 분위기 정도의 가벼운 뜻으로 쓰게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요즈음에 와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人間의 物理的 環境, 예컨대 建築이나 都市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깊이 깨닫기 시작한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전문적인 입장에서의 環境의 의미는 對象에 따라, 또는 認識의 方法이나 관련분야에 따라 다르게 定義되고 이해될 뿐만 아니라 학자들간에도 견해의 차이가 커다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인 環境의 意味나 定義를 내릴 수도 없고, 이 글의 취지상 그 필요성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본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설계라는 행위의 대상으로서의 환경을 환경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환경문제에 관한 내용과 의미의 파악이 더욱 중요시 되는 것이다. 설계란 어떤 대상에 관하여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조건속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며 설계라는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간이며 장소이다.

공간이나 장소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슬이 서로 얽혀져서 고리를 만들어가듯이 연속적이며 복합적인 관계에 의해 형성되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환경을 하나의 체계(System)로 보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관계로서 환경을 파악하기 때문이며, 환경문제들도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요소들간의 관계속에서 생겨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간이나 장소, 즉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공환경은 때로는 자생적으로, 또 때로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투쟁의 산물이며, 인간의 기술과 문명이 발달되고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인공환경의 각 요소들은 각기 세분화된 전문 분야에 의해 대부분이 만들어진 다.

전통적으로 인간의 물리적 환경에 관여하고 있는 분야로는 대체로 도시계획과 건축, 토목, 조경 등이라 하겠으며, 이들 분야들은 본질적으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으나 본격적인 전문분야로서 정

립된 것은 약 1 세기를 전후해서라고 보겠다. 이들 개개의 전문분야들은 각기 특정한 계획이나 설계의 과정을 거쳐 현실적인 문제를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획이나 설계의 대상과 조건에 따라, 또는 그 대상이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지는 공간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각기 해결의 방법이나 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되어진다. 이들 전문분야는 때로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또는 공존의 체제를 유지하기위해 서로 돕고, 경쟁하며 자기분야의 독자성을 유지해가고 있으며, 교육이나 실무 등을 통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을 양성하고 그 분야의 발전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기반을 다져왔다.

우리가 살고있는 인공환경은 환경설계에 속한 분야들에 의해 만들어진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독자성을 지니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관계속에서 공간이 구획되어지고 장소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살기좋은 환경, 잘 가꾸어지고 의미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환경설계에 속한 모든 분야들의 공통된 목표라 할 때, 각 분야는 자신의 성장과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전체로서의 환경이 조화롭고 질서가 유지될 때 비로소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집이나 가구들도 값이 비싸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것들이 아무렇게나 놓여진다거나 전혀 다른 의도로 사용될 때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없듯이, 우리가 한데모여 생활하고 있는 공동의 환경인 거리나 도시도 잘 지어진 몇 개의 건물이나 값비싼 몇 그루의 나무, 들 또는 말끔히 포장된 도로가 있다고 해서 그 거리나 도시가 아름답다고 하기는 어렵다.

도시환경과 환경설계

도시는 인류가 모여살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생활양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지배적인 것이다. 이 정주환경은 인간이 자연환경을 소재로하여 만든 인공환경으로 거시적으로는 도시의 다양한 활동을 미시적으로는 시민 각자의 삶을 담아주고 받쳐주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도시는 참으로 복잡적이고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몇마디의 말이나 글로 표현될 수 없을만큼 복잡하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도 과거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제각기 터를 닦아 집을 짓고 서로 왕래하며 길을 만들고 필요에 의해 갖가지 시설들을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모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요즘처럼 도시의 구조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도시란 자연적으로 생겨나거나 있는 그 자체로서의 환경이 아니라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요소들간의 복잡한 관계를 찾아내게 되었으며 도시는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과 단절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도시계획이란 바로 이러한 ‘관계’를 연구하는 전문분야라 할 수 있겠으나 이는 도시를 거시적이고 평면적으로는 다룰 뿐 아니라 특히 최근에 와서는 과거의 실천적인 방법이나 기술은 학문적인 과학화로 바뀌어져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에 관한 관심보다는 추상적인 이론에 접근하려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전문분야로 부터 필요이상의 세분화와 특화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입체적이고 장소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파악하며,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요소와 그들 요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과 그 속에 담겨지는 사람들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각 요소들간의 관계를 서로 맺어주고 조절하며 한데

모아 전체로서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필요하다.

환경설계란 일반적인 인식이나 범분야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건축이나 조경,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등 물리적 환경에 관여하는 전문분야들의 총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도 하겠으나 이를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의 역할이나 내용에 관한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문분야라고 할 수도 있다.

예컨데 단지설계를 한다거나 하나의 가로를 꾸민다고 할 때 건축은 건축대로 건물만 설계하고 토목기술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상하수도를 놓고 길을 닦는다든지, 조경은 다른 것과 상관없이 가로수를 심고 놀이터를 만들며 휴지통이나 가로등도 주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다면 비록 각각의 건물이나 시설들이 훌륭하다고 해도 단지나 가로들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불편하게 되고, 모든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또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과 같은 일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여러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그에 수반되는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설계의 일들이 제대로 인식되고 환경설계가 우리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첫째, 각 설계분야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서 환경존중의 사고 방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며, 둘째, 각 분야는 환경설계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독자성이 발휘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환경설계의 역할

환경설계는 환경조작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구성해 주는 역할을 담

당하도록 하며 각각의 분야에서 해야 할 세부적인 일을 일일이 간섭하거나 관여해서는 안된다. 환경설계는 각 분야에 독자성을 존중하고, 그들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열개를 짜주며, 그들의 일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각에 대한 규제의 방침과 기술을 논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인 방법론이 제시될 수 있어야만 ‘환경설계’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구체적으로 단지설계나 도시재개발 등의 마스터플랜이나 지구계획 등에서 나타나는 각 설계분야에 대한 규제와 설계지침 및 계획전체의 틀을 마련하는 일들이 될 수 있겠다.

이러한 환경설계의 일들이 제대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되리라 생각한다. 첫째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인간환경의 대표적인 공동 공간인 도시의 예를 들어보면 도시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변화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며, 모든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문제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환경문제는 그 구성요소의 관계가 서로 얽혀 움직이는 속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효과적인 파악을 유사한 것들을 함께 묶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구성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의 능력이 필요하다.

셋째로는 환경의 질에 대한 심미적인 감성의 계발이 필요하다. 환경은 인간이 창조한 기계는 아니며, 기능과 효율성만으로는 ‘좋은’ 환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따라서 환경의 정신적인 감성과 심미적인 요소가 수반되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건전하고 아름다운 편리한 환경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